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
------	----

2014. 9. 22.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년 9월 5일
- 나. 제안자 : 김현아 의원(찬성자 30명)
-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6일
-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
경제위원회(2014년 9월 22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 요지

-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4.1.1.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유학생·외국인주민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

두 41만 5,059명인 것으로 조사, 이는 서울시 전체 주민등록인구(10,143,645명) 대비 4.1%에 해당함.

- 그 중 외국인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서울시에 29,3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중국, 몽골, 남부아시아, 베트남, 일본,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서울시가 아시아교육의 허브 및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문화 및 산학협력분야에서 글로벌인재를 협력하여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우호 세력을 넓히면서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함.
- 이에 한국정부가 ODA 자금을, 서울시가 부지와 일정 재원을 출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교육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을 건립한다면, 국제수준의 메가시티로서 서울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사업이 될 것임.
- 한편,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국내 사립대에 외국대학분교설립 합작허용, 외국대학분교, 외국법인이 세운 국내법인)을 확대할 방침과 국제

대학촌 조성 계획을 발표(2014년 8월)하였다. 해외 명문대 유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 하고, 국내 어학캠프 운영을 통해 고액의 해외어학연수 비용을 줄이고자하는 정책을 미련하고 있음.

- 정부가 교육서비스투자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서울시는 서울소재 대학이 주체가 되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방안을 지원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권화 완성 및 교육 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연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서울시립기숙사촌을 건설해야 함.
- 서울시립기숙사촌 건설을 위해, 관련 국내기관(서울시, 기재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청) 및 국외기관(유네스코 방콕, 아시아월드뱅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관심 해외국가들, 등)의 출자 가능성을 포함한 기숙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행하여야 함.

Ⅲ . 이 송 처

- 서울시

IV .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건의안의 개요

- 서울시에 외국인 유학생은 29,3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중국, 몽골, 남부아시아, 베트남, 일본,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유학생·외국인주민은 모두 41만 5,059명으로 서울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4.1%에 해당함.
- 이에 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문화 및 산학협력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 같은 취지에서 서울시가 부지와 일정 재원을 출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교육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제선진도시·국제교육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맞고, 아시아교육의 허브 및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을 건립해 줄 것을 서울시 등에 건의하려는 것임.

나.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의 필요성

-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수는 157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3.1%이며, 이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유학생·외국인주민자녀 등은 모두 41만 5,059명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4.1%에 해당함.

< 외국인 주민수 변동 추이 >

(단위 : 천명, 괄호 안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



- 그 중 외국인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서울시에 29,3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중국, 몽골, 남부아시아, 베트남, 일본,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이에 서울시가 아시아교육의 허브 및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문화 및 산학협력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협력하여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부지와 일정 재원을 출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교육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을 건립한다면, 국제수준의 메가시티로서 서울시의 위상이 재고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권화 완성 및 교육 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소재 대학이 주체가 되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해 서울시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 수립시 ‘외국인 유학생 마을’ 전용기숙사 건립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반여건 마련, 외국의 우수한 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한편, 외국 사례중 프랑스 ‘국제대학촌’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파리 국제기숙사촌 내에 프랑스 정부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2,600㎡) 하여 현재까지 27개 국가에 총 40개의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음. 이 부지 내에 ‘14 ~ ‘18년까지 한국관도 설치예정(한·불 수교 130주년’과 연계, 별첨자료 참조)에 있음.

-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시아교육의 허브 및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차원에서 “서울시립 국제기숙사촌” 건립을 촉구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유학생 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해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89
----------	----

제안년월일 : 2014년 9월 5일

발의자 : 김현아, 김경자, 김기대,
김생환,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인제, 김정태, 김창원, 김혜련,
문상모, 맹진영,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우창운, 유 용, 유 청,
이신혜, 이윤희, 이창섭,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상호, 최관술,
한명희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4.1.1.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유학생·외국인주민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41만 5,059명인 것으로 조사, 이는 서울시 전체 주민등록인구 (10,143,645명) 대비 4.1%에 해당함.
- 그 중 외국인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서울시에 29,3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중국, 몽골, 남부아시아, 베트남, 일본,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서울시가 아시아교육의 허브 및 교육문화 네트

워크를 선도하는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 문화 및 산학협력분야에서 글로벌인재를 협력하여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우호 세력을 넓히면서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함.
- 이에 한국정부가 ODA 자금을, 서울시가 부지와 일정 재원을 출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교육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을 건립한다면, 국제수준의 메가시티로서 서울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사업이 될 것임.
- 한편,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국내 사립대에 외국대학분교설립 합작허용, 외국 대학분교, 외국법인이 세운 국내법인)을 확대할 방침과 국제대학촌 조성 계획을 발표(2014년 8월)하였다. 해외 명문대 유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 하고, 국내 어학캠프 운영을 통해 고액의 해외어학연수 비용을 줄이고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가 교육서비스투자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서울시는 서울 소재 대학이 주체가 되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방안을 지원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권화 완성 및 교육 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연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서울시립기숙사촌을 건설해야 함.

- 서울시립기숙사촌 건설을 위해, 관련 국내기관(서울시, 기재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청) 및 국외기관 (유네스코 방콕, 아시아월드뱅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관심 해외국가들, 등)의 출자 가능성을 포함한 기숙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행하여야 함.

2. 주 문

-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 건립을 건의함.

3. 이송처

- 서울시

서울시립국제기숙사 건립 촉구 건의안

- 외국인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서울시에 29,3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중국, 몽골, 남부아시아, 베트남, 일본,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서울시가 아시아교육의 허브 및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시가 부지와 일정 재원을 출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교육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립국제기숙사촌을 건립한다면, 국제수준의 메가시티로서 서울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확대할 방침과 국제대학촌 조성 등 교육서비스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육분야의 국제화에 앞장서는 시점에 서울시는 서울소재 대학이 주체가 되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방안을 지원해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권화 완성 및 교육 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선진도시·국제교육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맞고, 함께하는 교육연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서울시립기숙사촌을 건립을 촉구함.

2014.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